



백령도에 전하는 두 가지 전설



성기조
시인,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



백령도는 서해안 웅진 앞 바다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속한다. 인천에서 서쪽으로 229km 떨어진 섬으로 뱃길로는 136마일, 이 섬의 면적은 45.39km²에 인구는 약 4,500명, 1,400여 가구로 옹진군에서 가장 큰 섬이다.

고구려 때는 이 섬의 이름이 곡도(鵝島)라 하였고 고려 때에 와서 지금의 이름인 백령진(白翎鎭)이라 불렀다. 여기에서 백령 밑에 진이란 말이 붙은 것은 요새의

의미로 서해바다를 지키는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나타낸다. 조선 세종 때 (세종 10년) 영강(永康)과 백령(百翎)을 통합하여 강령진(康翎鎭)이라 불렀다가 뒤에 강령현이 되었다.

백령도에 관련된 기록으로는 맨 처음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진성여왕(眞聖女王)·(거타지居陀知)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이 전설이 최초의 기록이고 보면 백령도에 는 신라 때부터 사람이 살았고 당나라로 가는 뱃길에 들렀다가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진성여왕 때, 양패(良貝)란 사람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해적들이 남해 진도에서 길을 막는다는 말이 들렸다. 양패는 길을 막는 해적을 물리칠 심산으로

활 잘 쏘는 사람 오십 명을 뽑아 따르게 하고 해적이 있는 진도를 피해 백령도를 거쳐 당나라로 가기로 하였다.

배가 곡도(鶴島)(지금의 백령도)에 이르니 십여 일 동안 풍랑에 묶여 꼼짝 못하게 되었다. 양패가 걱정이 되어 사람을 시켜 점을 쳤다. 점괘를 보니 섬에 있는 신지(神池)에 제사를 지내야 좋겠다고 나와 양패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못 위에 제물을 정갈하게 차려 놓으니 못의 물이 한 길이 넘게 솟구쳤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활 잘 쏘는 사람 하나를 이 섬에 남겨두면 순풍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패는 누구를 남겨야 할지를 몰라 나무 조각 50개에 활 잘 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물에 넣으니 거타지의 이름을 쓴 나무 조각이

물에 잠겼다. 이것을 보고 양패는 거타지를 섬에 남아있게 하였더니 순풍이 일어 지체 없이 곡도(백령도)를 떠났다. 거타지는 양패가 떠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서 있는데 연못에서 어떤 노인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서해바다의 신이다. 날마다 해가 뜰 때면 중이 한 사람 나타나 다라니 주문을 외면서 이 연못을 세 번 도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물위에 뜬다. 그러면 그 중은 내 자손들의 간을 빼어 먹곤 하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살아남아 있다. 내일 아침에 그 중이 반드시 또 찾아 올 것이니 그대는 그 중을 활로 쏘아 주겠는가.”라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에 거타지가 노인의 말대로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중이 주문을 외우면서 나타나 늙은 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였다. 이때, 거타지가 활을 쏘아 맞추니 그 중은 늙은 여우로 변하여 땅에 엎어져 죽었다.

노인은 거타지에게 목숨을 보전하게 된 것을 치하하고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면서 딸을 천 가지의 꽃으로 변하게 해서 그의 품속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 두 용에게 그를 모시고 사신의 배를 따라가 호위하게 하였다.

일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온 거타지는 꽃가지를 내어 여자로 변하게 하여 함께 살았다.

이 기록이 백령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백령도가 당나라의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활을 잘 쏘는 거타지가

두 번째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훨씬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라 함은 이야기의 내용이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옛날에 황해도 어느 마을에 열심히 글공부하는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는 매우 가난하여 굶기를 밥먹듯 했는데, 그 선비의 집 가까이에 사포가 거처하는 집이 있었다.

사포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가난한 선비가 사포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 선비는 밤이면 몰래 담을 넘어 들어가 사포의 딸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고 소문이 났고 선비는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데, 가난 때문에 사포가 선비를 미워하여 드디어 그 고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나라 일을 충실하게 보살폈다는 기록이기도 하다.

요즘 같으면 황당한 기록이라고 여겨 진실로 믿지 않을 것이지만 옛날에는 힘 있는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다루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설화가 뒤따랐다.

선비는 사포에 의해 쫓겨날 때,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때가 있을 것이라, 그런 날이 꼭 돌아 올 것이니 참고 기다리며 살자”고 굳게 약속하고 그 고을을 떠났다. 쫓겨난 선비는 어느 섬에 도착하여 역시 글공부를 계속하면서 사포의 딸을 그

리워하고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자 선비는 사또의 딸을 만나지 못할까 조바심내고 마음 졸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커다란 하얀 학이 울안에 종이 한 장을 떨어뜨렸다. 선비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얼른 그 종이를 주워 읽어 보니 사또의 딸이 쓴 절절한 사랑의 편지였다. 그래서 선비는 재빨리 다른 종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섬 이름과 동네 이름, 그리고 어느 지점에 선비가 살고 있다라고 써서 학에게 주었더니 그 학은 길이 잘 들었던지 종이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갔다. 그리고는 사또네 집으로 찾아가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학이 전해 준 쪽지를 받은 사또의 딸은 그 선비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두 사람이 함께 잘 살았다. 그 뒤에 사람들은 그 섬을 흰 백(白)자, 날개 령(翎)자를 함께 써서 백령도라고 불렀다.

이 이야기는 백령도에서 채집된 설화로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백령도 사람들도 즐겨 말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바다의 요새, 백령도는 가보고 싶은 섬 중의 하나다. 휴전선의 북방에 위치한 섬이지만 우리 땅이다. 물론 백령도나, 그 섬에서 보면 코앞에 다가선 북한 땅이 모두 한국 땅이지만 북쪽의 땅은 지금 대한민국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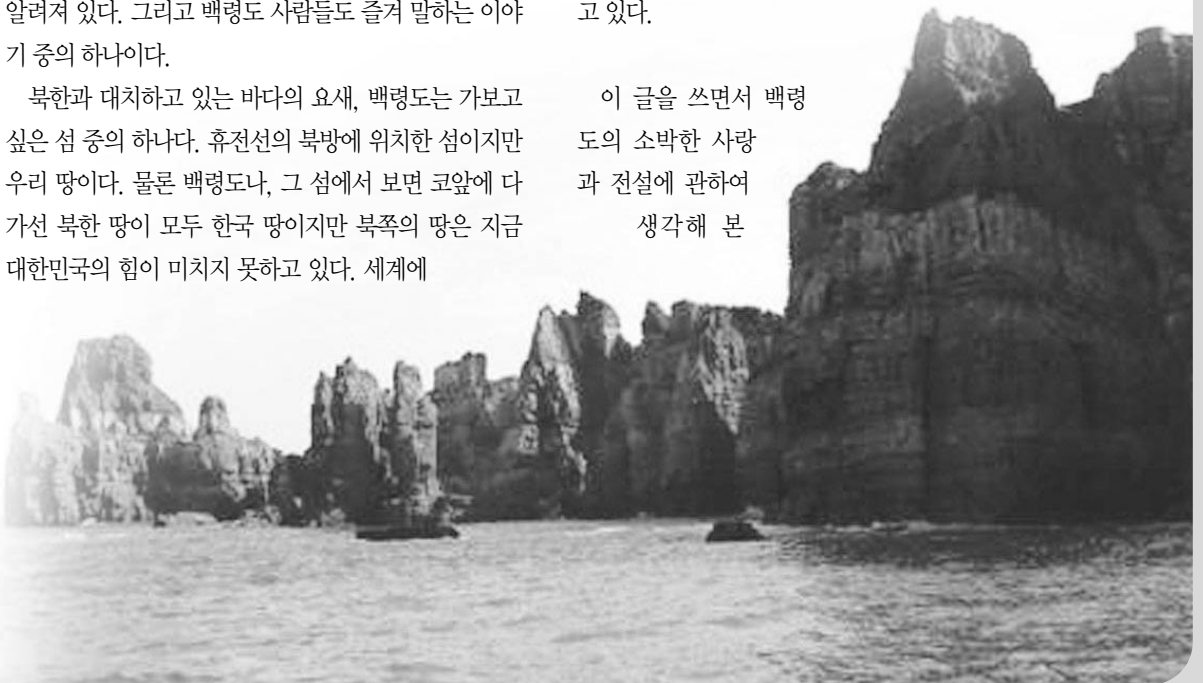
서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비극은 냉전의 산물이지만 인류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없이 죽어간 동족들의 영혼이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산야에 흩어져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다.

내게는 백령도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있다. 백령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이제는 정년하여 그 곳에 사는 친구다.

그는 백령도의 경치에 반해 스스로 자원해서 그 섬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아마 백령도에 사는 유일한 수필가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기가 하나 님 같은 분이다. 착하고 순하게 생겨 천생으로 남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한 분, 이 세상의 모든 찬사는 그에게 다 해줘도 모자라는 사람이다. 가끔 배를 타고 서울에도 오고 인천에도 다녀가는 그 분은 백령도의 경치와 풍습,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을 쓰면서 백령도의 소박한 사랑과 전설에 관하여 생각해 본



다. 섬은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무척 외로워 보인다. 어떻게 보면 물위에 떠 있는 한 줌의 흙, 한 덩어리의 바위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섬 주민 이외는 만나보기 힘들기 때문에 단절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의 애환을 찾아 기록하는 내 친구는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그저 백령도에 관한 기록이면 족하다는 생각이 그를 수필가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아름다운 섬을 둘러보면서 섬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설화 두 토막을 정리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란 생각이다. 